

복음 롬 1:2~7

사도바울의 자기 소개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란 뜻은 하나님에게 속한 복음이란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 뜻대로 보면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좋은 소식,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통일이 되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렇게 좋고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 이름을 1절에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서론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이 바로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이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빨리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아주 짧고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의 기원과 배경

첫째 사도바울은 복음의 기원과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만들어 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공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킨 바로 그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왕노릇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예수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약속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언서는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올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율법이 아니며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율법 외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의는 이미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납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 3장, 16장, 21장이 모두 복음이라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이미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글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기원은 인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 온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예언된 것이고 약속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도바울은 복음이 무엇가에 대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

도의 인간적인 기원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적인 기원으로 그는 사람이며, 신적인 기원으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적, 인간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2천년 전 팔레스틴의 한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써만이 아닌 놀라운 비밀을 갖습니다.

첫째, 혈통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계와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태어났던 우리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이주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창조 전에 족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도 혈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나오고 한 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메시야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적 기원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이라는 말 대신에 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육체의 기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역사적인 인물이요 메시야가 태어날 수 있는 그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보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들은 다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것이 그분의 신적인 기원입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완벽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원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인간적인 기원을 가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처럼 흔히 쓰이는 이름입니다. 또한 인간 예수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쓰지 않고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한 인간이시고 동정녀로 태어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타난 바로 그 예수님, 인간 예수님, 주무셨고 식사를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신적인 것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은 반쪽이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가 인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입니까? 슈바이처가 말한 바대로 그분이 단지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요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요셉의 아들인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세번째,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해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예배에 자주 빠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하느냐 하는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빛진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빛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북한이나 중국이나 몽골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그 부담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직장으로 버리고 전도할 만큼의 부담이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저들을 향한 복음의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담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고 껍데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숨기지 못합니다. 좋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좋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빛진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워서라도 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바울은 오늘 복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복음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에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